

##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기호와 인식\*

이상명\*\*

**주제분류** 근대철학, 인식론

**주요어** 기호, 인식, 사고, 개념, 관념, 심상, 증명

**요약문**

이 논문은 라이프니츠의 인식론에서 기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인간의 모든 사고가 기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호적 사고가 인식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단편 원전을 통해서 살펴본다. 우선 인간 사고의 알파벳과 보편 기호학에서 기호화와 기호적 인식의 배경과 전제를 확인한다.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정의한 인식의 등급에서 기호적 인식이 매우 새롭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살펴보고, 기호적 사고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관념을 소유한 인간의 정신이 신의 직관적 인식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라이프니츠는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경험과 증명을 주장하는데, 이때 기호적 사고는 감각 지각으로부터 얻은 심적 내용물을 구별되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추론과 논증에서 유용한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증명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다. 결국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한 신과 세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6636)

\*\* 숭실대학교

## 1. 머리말

라이프니츠의 인식론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기호의 역할이다. 라이프니츠는 인간 인식의 특징이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기호적 인식은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다루는 인식의 여러 형태 중 하나가 아니다. 그렇다고 인간 인식이 지향해야 할 방향도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목표도 아니다. 그는 기호적 인식이 인간 인식의 보편적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는 기호를 통해 사고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이런 견해는 아래 인용한 텍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식이란 대상에 대한 사고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사고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sup>

“진리를 발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분석이 필요하다. 각각의 기호는 사고에 상응하기 때문에 이 사고의 분석은 사고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의 분석에 해당한다.”<sup>2)</sup>

“인간의 모든 이성적 추론은 어떤 부호나 기호를 통해서 완성된다.”<sup>3)</sup>

---

1) De cognitione(1686): A VI, 4, 802쪽. “Cognitio nihil aliud est quam cogitatio relata ad objectum. Ejus enim cognitionem aliquam habere dicimur, de quo cogitamus.”

2) Analysis linguarum(1678): A VI, 4, 102쪽. “Ad inventionem ac demonstrationem veritatum opus est analysi cogitationum: quae quia respondet analysi characterum, quibus ad significandas cogitationes utimur, cuilibet enim characteri certa respondet cogitatio, ...”

3) Fundamenta calculi ratiocinatoris(1688): A VI, 4, 918쪽. “Omnis humana

위에 인용한 텍스트들은 라이프니츠 사후 출간되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단편 저작들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단편적 주장으로 기호가 인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러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기호적 인식은 무엇인가? 어떻게 기호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 또 그렇게 얻은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기호적 인식은 인식론의 주요 문제들, 즉 인식의 확실성, 진리 기준, 세계에 대한 이해, 지식의 가능조건 등의 문제에 답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답변을 찾으면서 그의 견해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라이프니츠가 기호적 인식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한 것의 결과물이다. 결과물을 전개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논문은 기호적 인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여러 단편들을 살펴보고 해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라이프니츠가 ‘기호적 인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만 한 저작을 남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라이프니츠는 여러 단편 저작에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주장만 있거나 근거를 제시했다하더라도 덧붙인 근거들은 개별적으로는 기호적 인식의 의미

---

*ratiocinatio signis quibusdam sive characteribus percifitur.*” 라이프니츠의 텍스트에는 일반적으로 ‘기호’라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세 종류 등장한다. ‘character’, ‘signum’, ‘nota’가 그것이다. 그리고 ‘기호적’ 인식이라고 할 때는 ‘symbolicus’를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나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모두 ‘기호’라고 썼지만, 라이프니츠의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구별할 필요가 있어 ‘character’를 ‘기호’로, ‘signum’을 ‘부호’로, ‘nota’를 ‘표지’로 번역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signum’을 보통 ‘기호’로 번역하기도 한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characteristica universalis’를 ‘보편 기호법’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character’와 ‘signum’을 구별하기 위해서 ‘signum’을 ‘부호’라고 번역했다. 라이프니츠는 같은 텍스트 919쪽에서 이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부호는 말, 글, 화학이나 천문학의 도형, 중국 문자, 상형문자, 음표, 비밀문자, 산술과 대수의 부호 등, 사고할 때 사물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쓰여진, 표기된, 새겨진 부호는 기호라고 부른다.”

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단편들에서 나타나는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기호’와 ‘인식’이라는 주제로 여러 단편들에서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각주에 원문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인간 사고의 알파벳과 보편 기호법

기호적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이 논의의 배경을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인식에 있어서 기호의 역할에 대한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기호적 인식의 근본 전제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기호와 사고 혹은 인식에 관한 견해는 미완의 프로젝트였던 백과사전 기획과 일반학(*scientia generalis*) 기획에서 나온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모든 지식과 학문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고 진리를 발견하고 증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모든 학문에 대한 학문’, 즉 모든 학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학을 기획했고 그것의 일환으로 기하학을 모델로 하는 새로운 백과사전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식의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 일이 개념과 명제의 질서 있는 목록을 만드는 일이며 결국 ‘인간 사고의 알파벳’(alphabetum cogitationum humanarum)을 찾는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나는 범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다. 말하자면 나는 단순 개념의 범주 혹은 분류가 있는 것처럼, 명제 자체(혹은 복합 명사(名辭))가 자연적 순서에 따라 배치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범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복합 명사 혹은 명제에 대해서 그런 범주를 정립하려고 애쓰고, 이 일에 나의 모든 노력을 바치면서 나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놀랄만한 고찰에 이르렀다. 즉 인간 사고의 특정한 알파벳을 고안할 수 있고, 이 알파벳의 문자를 조합하고 이것

으로 만들어진 단어를 분석해서 이성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sup>

진리를 발견하는 법과 진리를 판단하는 법을 찾는 것은 근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공통적인 인식론적 관심사였다. 라이프니츠가 일반학을 기획한 목적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일반학을 구상하면서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지식을 체계화하기보다는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구성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인간 사고의 알파벳’이라고 불렀다. “인간 사고의 알파벳이란 근원 개념, 즉 우리가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의 목록이다.”<sup>5)</sup> 라이프니츠는 인간 사고의 알파벳을 이렇게 정의한다. 근원 개념이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고 그 자체로 이해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 사고를 구성하는 개념들이 이 근원 개념으로 분해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라이프니츠는 이 근원 개념을 수학의 소수( Numerus primitivus )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한다.<sup>6)</sup>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의 수로는 나뉘지 않는 수, 사실상 더 이상 나뉘질 수 없는 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0’이라는 수는 ‘3×4×5’로 분해될

4) De numeris characteristicis ad linguam universalem constituendam(1679): A VI, 4, 265쪽. “Inter alia dubitationem aliquando movebam de praedicamentis. Dicebam enim quemadmodum haberentur praedicamenta seu classes notionum simplicium, ita debere haberi novum praedicamentorum genus, in quo et propositiones ipsae (seu Termini complexi) ordine naturali disponerentur. ... moliebar condere hujusmodi praedicamenta Terminorum complexorum, seu propositionum. Cui studio cum intentius incumberem, incidi necessario in hanc contemplationem admirandam, quod scilicet excogitari posset quoddam Alphabetum cogitationum humanarum, et quod literarum hujus Alphabeti combinatione et vocabulorum ex ipsis factorum analysi omnia quae ratione constant et inveniri et dijudicari possent.”

5) De alphabeto cogitationum humanarum(1679 - 1681): A VI, 4, 270쪽. “Alphabetum cogitationum humanarum est catalogus notionum primitivarum, seu earum quas nullis definitionibus clariore reddere possumus.”

6) Sur les premieres propositions et les premiers terms(1676): A VI, 2, 436쪽.

수 있지만 소수만을 이용해 ‘ $2 \times 2 \times 3 \times 5$ ’로도 분해될 수 있다. 일반학 기획에서 인간 사고의 알파벳이 있다는 생각에는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는 개념들이 분해와 합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복합 개념은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 개념으로 분해될 수 있고 역으로 합성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개념의 분해와 합성은 라이프니츠의 기호적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전제이다.

일반학은 우리의 사고가 근원 개념으로 분해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 개념은 단순 개념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런 분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별개다. 라이프니츠도 개념의 분해는 경우에 따라 무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의 능력이 유한한 인간은 이 분해를 끝까지 수행할 수 없으며 오직 신만이 모든 것을 근원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과사전과 일반학이 미완의 기획으로 끝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기호적 인식을 주장하는 또 다른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지성은 무한한 신의 지성에 비해 유한하고 불완전해서 모든 것을 그 근원 개념으로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하려는 대상을 그것의 근원에서 모든 근원적인 것을 동시에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라이프니츠는 보편 기호법(*ars characteristica universalis*)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가 기호의 인식론적 기능을 언급하는 곳이 이 부분이다.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주제[보편 기호법]에 대해서 오랜 전에 생각했을 때, 나에게 분명했던 것은, 인간의 모든 사고들이 몇몇 근원 개념들로 분해될 것이고 그 근원 개념들에 기호를 지정하면, 언제나 근원 개념 같은 모든 필수적 구성요소들이 드러날 수 있는 파생 개념들의 기호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분명하게 말해서 그 개념들의 정의 혹은 효용성, 그리고 정의로부터 증명될 수 있는 속성들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는 것이다. 이것이 한 번 확실해지면 이 기호를 추론과 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거나 실수가 그 자신에 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는 주어진 정보에서 가능한 만큼 진리를 발견할 것이고 주어진 정보가 찾고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이 필요한지 항상 알 수 있을 것이다.”<sup>7)</sup>

근원 개념과 파생 개념에 기호를 지정하면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 사이에 라이프니츠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개념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파리 체류 기간에 쓴 단편 「정신, 우주, 신에 관하여」에서 이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관념에 의한 [사고] 과정과 정의 또는 기호에 의한 [사고] 과정 간에 차이가 있다. 정의는 기호의 해명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의에 의한 과정은 그 자체로 관념에 의한 과정을 포함한다. 나는 말하는 사람은 사고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정의에 의한 과정이 관념에 의한 과정에 더하는 것은 사고가 정해져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사고 과정 전체를 한 눈에 볼

---

7) *Fundamenta calculi ratiocinatoris*(1688): A VI, 4, 919쪽. “Mihi vero rem altius agitanti, dudum manifeste apparuit, omnes humanas cogitationes in paucas admodum resolvi tanquam primitivas, quod si his characteres assignentur, posse inde formari characteres notionum derivatarum ex quibus semper omnia earum requisita notionisque primitivae ingredients, et ut verbo dicam definitiones sive valores et proinde et affectiones ex definitionibus demonstrabiles, erui possint. Hoc uno autem praestito quisquis characteribus hujusmodi inter ratiocinandum scribendumque uteretur, aut nunquam laberetur, aut lapsus suos ipse non minus atque alii semper facillimis examinibus deprehenderet, inveniret praeterea veritatem, quantum ex datis licet, et sicubi data ad inveniendum quaesitum non essent sufficientia, videret quibusnam adhuc experimentis, vel notitiis esset opus quin saltem accedere posset veritati, ...” 이 논문에서 라이프니츠의 텍스트 번역에 [ ]는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맥락 상 필요한 말을 삽입한 것이다.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의에 의한 과정이 관념에 의한 과정에 대해서 갖는 관계는 경계 짓기 과정이 그 자체로 한정 없는 단순한 상상에 의한 과정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같다. 이런 방식으로 상상이 형상을 갖게 된다. 우리가 경계를 짓지 않거나 정의하지 않고 상상이나 관념으로 사고를 진행하면 우리는 기억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종종 우리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sup>8)</sup>

이 텍스트에서 우리는 기호화하는 것이 기호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과 같다는 라이프니츠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의는 상상에 의해서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사고를 경계 짓는 것과 같다. 인식에 있어서 기호는 사물을 직접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고할 때 사물이나 사안을 표상하는 심상(imago)이나 관념(idea), 또는 개념(notio) 등의 심적 내용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심적 내용물을 기호로 표기하는 것은 정의하는 것, 즉 희미한 심상을 분명하게 하고 혼란스러운 관념을 구별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호화는 심적 내용물을 정의에 의해서 분명하고 구별되게 함으로써 그리고 기호를 사용해 추론을 단순하게 함으로써 사고과정에 혼동과 혼란을 피하는 길이다.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면 상상과 기억의 한계를 보완하고 유한한 우리의 정신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기호화에 대한 고찰이다.

---

8) De mente, de universo, de Deo(1675): A VI, 3, 462쪽. “Differentia inter processum per ideas, et processum per definitiones, vel characteres, definitio enim characteris explicatio est. Omnis processus per definitiones continet in se processum per ideas. Suppono enim qui loquitur cogitare. Processus per definitiones addit processui per ideas, ut cogitatio fiat fixa; ut nobis ipsis aliisque semper patere possit; ut totus noster cogitandi processus uno obtutu perspicui possit. ... Ita est definitionum processus ad processum per ideas; ut processus per delineationes, ad processum per simplices imaginationes; quae vagae per se hoc modo figuntur. Cum per imaginationes aut ideas procedimus, sine delineationibus aut definitionibus: fallimur a memoria, videmurque nobis saepe praetitis quae non fecimus.”

라이프니츠는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의 추론을 구성하고 추론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표기함으로써 심상이나 관념 등의 심적 내용물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심적 표상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개념이나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인간의 모든 사고에 적용해 더욱더 쉽고 확실하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편 기호법을 체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보편 기호법을 계획하면서 라이프니츠는 다음 두 가지를 전제한다. 하나는 인간의 사고과정 혹은 추론 과정이 흠스가 말한 것과 같이 계산하는 과정과 같다고 본 것이고, 둘째는 유한한 인간의 사고는 어떤 형식적 틀을 따른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 형식적 틀을 ‘기계적 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사고가 어떤 기계적 길을 따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전제 또한 기호적 인식의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 전제들은 다음 두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매우 큰 수들로 계산하는 경우, 이름이나 수와 같은 부호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계산할 수 없을 것이다. …… 마찬가지로 어떤 부호, 즉 이름이 고안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긴 추론을 그의 정신으로 따를 수 없을 것이다. 부호, 즉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많은 것들을 아주 빨리 파악할 수 있다.”<sup>9)</sup>

“기호와 관계하지 않고 사고 자체에 접근할 때보다 기호의 도움으로 우리는 [사고의 분석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성은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기계적 실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상력에 종속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기호 자체가 실을 제공한다.”<sup>10)</sup>

9) Demonstratio propositionum primarum(1671-1672): A VI, 2, 481쪽. “... nemo computare posset, praesertum numeros ingentes, sine nominibus vel signis numeralibus, ... Ita nemo ratiocinationes longe productas persequi animo posset, nisi reperta essent signa quaedam, id est nomina, quibus magna rerum vis ita compendiose comprehenderetur, ...”

지금까지 인간 사고의 알파벳의 발견과 보편 기호법의 가능성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견해를 살펴보면서 기호적 인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전제들을 살펴보았다.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는 개념의 분해와 합성, 신과는 다른 유한한 인간의 인식 능력, 그리고 계산 과정과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사고 과정, 우리의 사고는 어떤 기계적 길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앞에 인용한 텍스트들에는 기호가 표현하는 심상, 관념, 개념 등의 심적 내용물들 간의 구별에 관해서 더 살펴볼 것이 있지만,<sup>11)</sup> 그것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기호적 인식의 기능과 의미로 넘어갈 것이다.

### 3. 기호적 인식

1684년 11월 라이프니츠는 그 당시 발간되던 학술 저널 *Acta Eruditorum*에 「인식, 진리 그리고 관념에 대한 성찰(Meditationes de cognitione, veritate et ideis)」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출판한다. 이 논문은 말브랑슈와 아르노가 인식론적 주제로 벌인 논쟁에 대해서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인데, 기호적 인식에 대해서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저작이다. 이 논문에서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분명하고 구별되는 인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이 진리 기준이 효과도 없고 오용될 여지도 많다고 거부한다. 그가 보기에, 문제는 인식의 등급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인간이 사고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10) *Analysis linguarum*(1678): A VI, 4, 102쪽. “Hoc autem ope characterum facilius fit, quam si nullo ad characteres respectu cogitationes ipsas aggrediamur; nam intellectus noster filo quodam mechanico regendus est, ob suam imbecillitatem; quod filum in illis cogitationibus quae res imaginationi non subjectas exhibent, ipsi praestant characters.”

11) 이 주제와 관해서 Leduc(2014) 참조.

과정을 통해서 사고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식의 등급을 재정립하고 정의하면서 기호적 인식을 완전히 새롭고 의미 있는 인식의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라이프니츠가 나눈 인식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인식은 모호하거나 **분명**하다. 분명한 인식은 다시 혼란스러운 인식이거나 **구별되는** 인식이고 구별되는 인식은 다시 불충분한 인식이거나 **충분한** 인식이고 또한 기호적 인식이거나 **직관적** 인식이다. 인식이 충분하면서 동시에 직관적일 때 가장 완전한 인식이 된다.”<sup>12)</sup>

이 인식 등급의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인용한 이 라이프니츠의 논문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에서 라이프니츠는 인식(cognitio), 사고(cogitatio), 개념(notio)이라는 말을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개념은 인식과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

모호한 인식과 분명한 인식의 구별 기준은 표상된 사물의 인지 또는 재인식 여부이다. 우리가 전에 본적이 있는 어떤 꽃이나 동물을 다시 알아보지 못하거나 유사한 다른 것과 구별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표상된 사물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3)</sup>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관념으로 사물들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나는 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는, 오리에 대한 관념을 모호하게 가지고 있어서, 거위를 보고서도 오리라고 인

12) Meditationes de cognitione, veritate et ideis(1684)(이하 Meditationes): A VI, 4, 585-586쪽. “Est ergo cognitio vel obscura vel **clara**; et clara rursus vel confusa vel **distincta**; et distincta vel inadaequata vel **adaequata**, item vel symbolica vel **intuitiva**: et quidem si simul adaequata et intuitiva sit, perfectissima est.”(라이프니츠 강조: 이하 원전의 강조는 모두 라이프니츠 강조)

13) Meditationes, 586쪽.

식하는 것이다. 반면 분명한 인식은,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관념으로 사물들을 잘 구별하는 경우의 인식을 말한다. 동물학자는 오리, 거위에 대한 관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사물들을 오리, 거위라는 범주 안에 잘 위치시킨다.

라이프니츠는 분명한 개념을 다시 혼란스러운 개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분한다. 분명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혼란스러운 개념일 수 있고 구별되는 개념일 수도 있다. 이 구별의 기준은 한 사물을 다른 유사한 사물과 구별하는데 충분한 표지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이다. 우리가 이런 표지나 증거들 각각을 나열할 수 없을 때 개념은 혼란스럽다. 구별되는 개념은 ‘수, 크기, 모양의 개념과 같이 여러 감각에 공통적인 개념들처럼 우리가 **명목적 정의**, 즉 충분한 표지들을 열거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다.’<sup>14)</sup> 우리는 대체로 금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진다. 즉, 금인 것과 금 아닌 것을 잘 구별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금에 대해 구별되는 개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세공업자만이 금에 대해 구별되는 개념을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 개념들을 충분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금이 노란색을 띠고, 순금은 무르다는 정도는 알지만, 어떤 용액에 녹는지, 몇 도에서 녹는지, 어떤 원자가 어떤 배열을 통해 이 금속을 만들어 내는지 등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더라도 다른 유사한 것과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

구별되는 개념은 그 개념을 구성하는 개별 표지들의 구별의 문제로 충분하거나 불충분한 개념으로 구분된다. 개념의 분해 여부와 정도 그리고 그 구성 개념까지도 구별가능한가가 기준이 된다. 구별되는 개념이 더 이상 정의할 수 없는 근원 개념일 수 있지만 복합 개념일 경우 그것을

---

14) Meditationes, 587쪽.

구성하는 개념들까지도 구별되게 인식할 수 있는가를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인간 정신에 주어진 개념들은 거의 대부분 복합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구분은 유의미하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구별되는 개념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이 다시금 구별되게 인식될 때, 혹은 분해가 끝까지 수행될 때, 그 인식은 **충분한** 인식이다. 나는 이런 인식에 대한 완전한 예시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수에 대한 인식은 여기에 매우 근접해 있다.”<sup>15)</sup>라고 말한다. 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 인식일 수 있다는 것은 소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분해를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식 능력의 한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니츠가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이 처해있는 인식의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조건 하에서 어떻게 진리의 인식이 가능한지를 논하고 있다. 구별되는 인식을 한편으로는 충분한 인식과 불충분한 인식으로 구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기호적 인식과 직관적 인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진리 인식의 가능 조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라이프니츠가 주장하는 기호적 사고에 대한 해명을 보자.

“대부분, 특히 분해가 더 길 경우에 우리는 사물의 본성 전체를 한번에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물의 자리에 기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기호에 대한 설명은 단축하기 위해서 생략한다. 우리가 그런 기호를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천각형, 즉 천개의 등면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면이나 각, 천각의

15) *Meditationes*, 587쪽. “Cum vero id omne quod notitiam distinctam ingreditur, rursus distincte cognitum est, seu cum analysis ad finem usque producta habetur, cognitio est **adaequata**, cujus exemplum perfectum nescio an homines dare possint; valde tamen ad eam accedit notitia numerorum.”

본성에 대해서 항상 고찰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이 사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의 자리에 이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 단어의 의미가 정신에 모호하고 불완전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대수학과 산술에서 그리고 사실상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이런 사고를 나는 **명목적** 사고 또는 **기호적** 사고라고 부른다. 그리고 개념이 매우 복합적일 때 분명히 우리는 그것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혹은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는 그 인식을 **직관적**이라고 부른다. 복합 개념에 대한 사고가 대부분 기호적 사고인 것처럼 구별되는 근원개념에 대한 인식은 직관적 인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sup>16)</sup>

라이프니츠는 근대 어떤 철학자도 주장한 바 없는 기호적 인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천각형의 예를 들면서 기호적 사고가 대수학과 산술 등 수학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그 외에도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고 말한다. 즉 기호를 사용하는 사고는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

16) Meditationes, 587-588쪽. “Plerumque autem, praesertim in Analysis longiore, non totam simul naturam rei intuemur, sed rerum loco signis utimur, quorum explicationem in praesenti aliqua cogitatione compendii causa solemus praetermittere, scientes aut credentes nos eam habere in potestate: ita cum Chiliogonum seu Polygonum mille aequalium laterum cogito, non semper naturam lateris et aequalitatis et millenarii (seu cubi a denario) considero, sed vocabulis istis (quorum sensus obscure saltem atque imperfecte menti obversatur) in animo utor loco idearum quas de iis habeo, quoniam memini me significationem istorum vocabulorum habere, explicationem autem nunc judico necessariam non esse; qualem cogitationem **caecam** vel etiam **symbolicam** appellare soleo, qua et in Algebra et in Arithmetica utimur, imo fere ubique. Et certe cum notio valde composita est, non possumus omnes ingredientes eam notiones simul cogitare: ubi tamen hoc licet, vel saltem in quantum licet, cognitionem voco **intuitivam**. Notionis distinctae primitivae non alia datur cognitio, quam intuitiva, ut compositarum plerumque cogitatio non nisi symbolica est.”

공통적인 사고 방법이며 인식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호적 사고의 다른 이름으로 명목적 사고를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호적 사고를 사용하는 것은 복합 개념을 완전하게 분해해서 그것의 모든 근원 개념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처럼 모든 것을 근원 개념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먼저 데카르트도 언급한 바 있는 천각형의 예부터 살펴보자. 천각형은 복합 개념이다. 라이프니츠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천각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각형’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천이라는 수, 면, 같음, 각, 등의 분해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또 천이라는 수, 면, 같음, 각, 등의 개념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천각형을 생각할 때 갖게 되는 관념에 ‘천각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실제로 천각형 개념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천각형’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는 있다. 앞에 인용한 텍스트에 따르면 천각형을 정의하는 것은 ‘천각형’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적 개념은 모두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기호라 할 수 있다. 기하학이 그런 것처럼 수학적 개념은 심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은 수학적 개념들을 기호를 사용해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호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기호적 사고를 ‘명목적 사고’라고도 부른다.<sup>17)</sup> 그래서 ‘명목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기호적 사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앞의 텍스트에서 ‘명목적’이라고 번역한 ‘caecus’는 보통 ‘눈먼’, ‘맹목적’을 뜻한다. 그러나 라이프니츠의 기호적 사고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런 의미보다는 ‘명목적’, ‘내용 없는’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왜냐하면 기호적 사고는 복합 개념을 그것의 모든 구성요소들로 분해하지 못하고 모든 구성요소들을 동시에 생각할 수

17) De arte combinatoria: A VI, 1, 170쪽; Demonstratio propositionum primarum (1671-1672): A VI, 2, 481쪽 참조.

없을 때, 즉 그것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이름뿐인 기호를 사용해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해서도 라이프니츠의 진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성을 신의 지성과 비교해 인간의 지성은 유한하고 신의 지성은 무한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지성이 유한해서 어떻게 신과 달리 인식의 한계를 갖는지 해명한다. 말하자면 개념은 분해와 합성이 가능한데 인간은 신과 달리 모든 것을 그것의 근원 개념으로 분해해 동시에 모든 근원 개념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충분한 개념을 가질 수 없고 직관적 인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인간은 기호를 사용해 사고하고 추론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단편 「정신, 우주, 신에 관하여」에서 원의 관념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신이 가지고 있는 원의 관념과 같은 원의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 원의 어떤 심상이 있고 원의 정의가 있으며 우리에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것들의 관념이 있다. 우리는 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원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 우리는 원의 본질이 우리에게 알려진 만큼만, 즉 단지 부분적으로만 원을 인식한다. 우리가 원의 본질 전체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원의 관념을 갖는 것이다. 오직 신만이 합성물의 관념을 갖는다. 반면에 우리는 원의 필수요소를 부분적으로 생각하면서 원의 본질을 인식한다. 우리가 가진 관념의 결여는 감각 가능한 어떤 심상에 의해서 혹은 정의, 즉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기호들의 집적에 의해서 보완된다. 관념의 자리는 항상 모든 것이 한 번에 감각되는 어떤 환상에 의해서 채워진다. 심상들은 감각을 자극하고 기호들은 사고를 자극한다. 전자는 행동에 더 적합하고 후자는 추론에 더 적합하다.”<sup>18)</sup>

18) De mente, de universo, de Deo(1675): A VI, 3, 463쪽. “nulla est in nobis idea circuli, ut in Deo est, qui omnia simul cogitat. Imago aliqua circuli est in nobis; est et definitio circuli, et ideae sunt in nobis eorum, quae ad circulum

유한한 인간의 지성은 신의 지성과 달리 사물을 그 모든 근원 개념들을 아울러 동시에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알려진 본질에 대해서만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합 개념 혹은 합성물에 대한 관념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완전한 관념에 구별 가능한 기호를 사용해 사고한다. 우리가 가진 심적 내용물이 단지 심상 수준에 머물 경우 그것은 분명하더라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심상은 상상력에 의존하거나 감각 가능한 지각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런 경우 기억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관념을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이성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심적 내용물은 상상의 수준을 넘어 구별 가능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 사고하는 것이 기억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앞에 인용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주제와 관련된 라이프니츠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하는 관념(*idea*) 개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의 표현법에서 무엇에 대해서 사고하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사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고와 인식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어떤 사물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라이프니츠에게서 관념은 사고의 작용이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cogitandum necessaria auct. Cogitamus de circulo, demonstramus de circulo, cognoscimus circulum; essentiam eius habemus cognitiam; sed per partes. Si essentiam circuli totam simul cogitarem, haberemus circuli ideam. Solius Dei est ideas habere rerum compositiarum. Interea essentiam circuli cognoscimus, cogitando eius requisita per partes. Ideae defectum in nobis supplet imago aliqua sensibilis, aut definitio; sive aggregatum characterum, in quibus nulla opus est similitudine. Semper ideae locum supplet, phantasma aliquod quod totum simul sentitur. Imagines sensus excitant, characteres cogitationem: illae ad operandum, ad rationandum aptiores.”*

19) GP VI, 501쪽. 참조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사고하고 있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관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원할 경우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sup>20)</sup>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불완전하다. 우리가 인식하려는 사물에 대한 관념이 복합적일 경우, 우리는 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같은 완전한 관념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인식도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을까? 기호적 사고는 감각과 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만 하는가? 신과는 다른 유한한 인간의 지성적 조건에서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인식하고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가?

#### 4. 기호와 증명적 지식

이제 기호적 사고를 진리 인식의 문제와 관련시켜 보려고 한다. 여기서 다음 두 텍스트에 나타나는 라이프니츠의 주장을 살펴보자. 라이프니츠는 「관념이란 무엇인가」라는 단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에게 사물의 관념이 있다는 것은 사물과 정신을 창조한 신이 사물들로부터 도출되는 것들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것들을 정신 자체의 작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고하는 능력을 우리의 정신에 부여했다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의 관념이 원과 유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원의 관념으로부터 실제 원에서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되는 진리들을 추론해 낼 수 있다.”<sup>21)</sup>

---

20) Quid sit idea(1677): A VI, 4, 1370쪽.

그리고 「인식, 진리 그리고 관념에 대한 성찰」에서 기호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설명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구별되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의 관념을 지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명사들을 이미 해명했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 사물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sup>22)</sup>

이 두 텍스트를 종합해보면 사물의 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사고하는 능력, 즉 추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신이 사물과 정신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물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은 개념을 완전하게 분해할 수 없다. 우리는 불충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과 같이 완전한 인식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직관적 인식은 불가능한가? 이 문제에서 기호적 사고의 기능에 대한 라이프니츠 고유의 견해가 나타난다.

우리는 모든 복합 개념을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 개념으로 분해할 수 없다. 하지만 가능한 정도까지 분해가 이루어진 상태의 개념에 혹은 복합 개념 자체에 기호를 붙여 인식한다. 이때 기호적 인식은 충분히 완전

---

21) 앞의 저작, 1371쪽. “Ideam itaque rerum in nobis esse, nihil aliud est, quam Deum autorem pariter et rerum et mentis eam menti facultatem cogitandi impressisse, ut ex suis operationibus ea ducere possit quae perfecte respondeant his quae sequuntur ex rebus. Etsi itaque idea circuli non sit circulo similis, tamen ex ea veritates duci possunt, quas in vero circulo experientia haud dubie confirmatura.”

22) Meditationes, 588쪽. “nos eorum quoque quae distincte cognoscimus, ideas non percipere, nisi quantenus cogitatione intuitiva utimur. Et sane contingit, ut nos saepe falso credamus habere in animo **ideas** rerum, cum falso supponimus aliquos terminos, quibus utimur, jam a nobis fuisse explicatos,”

하지 않고 복합 개념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을 알지 못하더라도 기호를 통해서 통합해 인식하는 것이다. 천각형에 대한 심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천각형’이라는 말-기호를 사용하고 천각형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천각형 개념에 포함된 모든 것을 통합해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복잡한 것, 합성된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인간의 사고가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호적 인식은 모든 것을 동시에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신의 직관적 인식과 같은 인식은 아니다. 단지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의 직관적 인식이 갖는 직접성과 통합성을 모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기호적 인식을 신의 직관적 인식과 단지 분명한 인식 사이에 인간 인식의 매우 중요한 형태로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충분히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에 기호를 붙인 명목적 개념에 머물러 있을 경우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사물에 대한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거나 예전에 이미 이해했다고 잘못 기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기호적 인식 자체가 참된 관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라이프니츠의 정의에 따르면 참된 관념은 그것의 개념이 가능할 때이고 거짓 관념은 그것의 개념이 모순을 포함할 때이다. 이 진리치의 구별은 그의 정의 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명목적 정의와 실제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우리는 한 사물과 다른 사물을 구별하는 표지들만 포함하는 **명목적 정의**와 한 사물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실제적 정의**를 구별한다. …… 정의된 사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확립하지 않는 한, 명목적 정의는 완전한 지식에 충분하지 않다.”<sup>23)</sup>

23) Meditationes, 589쪽. “habemus quoque discrimen inter **definitiones nominales**, quae notas tantum rei ab aliis discernendae continent, et **reales**, ex quibus constat rem esse possibilem, ... Nec definitiones nominales sufficiunt ad

기호적 인식은 명목적 정의만 이루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사물들을 서로 구별할 수는 있지만 실재적 정의, 즉 사물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관념이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사물의 가능성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사물의 가능성을 아는 방법을 다음 두 가지로 말한다.

“우리는 사물의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인식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인식한다. 우리가 개념을 그것의 필수요소들로 분해할 때 혹은 가능성이 이미 알려져 있는 다른 개념들로 분해할 때 그리고 이 다른 개념들에 양립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사물의 가능성을 선험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일은 다른 때보다 우리가 그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인과적 정의**가 유용하다. 경험을 통해서 사물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이 현실적으로 현존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이다. 사물이 현존하거나 현존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인식을 가질 때마다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선험적으로 가진다. 분해가 끝까지 수행되었다면, 모순이 나타나지 않는 한, 개념은 어떻게 가능하기 때문이다.”<sup>24)</sup>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의 현실적 현존은 사물의 가능성을

---

perfectam scientiam, nisi quando aliunde constat rem definitam esse possibilem.”  
 24) Meditationes, 589-590쪽. “**Possibilitatem** autem rei vel a priori cognoscimus, vel a posteriori. Et quidem a priori, cum notionem resolvimus in sua requisita, seu in alias notiones cognitae possibilitatis, nihilque in illis incompatible esse scimus; idque fit inter alia, cum intelligimus modum, quo res possit produci, unde prae caeteris utiles sunt **Definitiones causales**: a posteriori vero, cum rem actu existere experimus, quod enim actu existit, vel extitit, id utique possibile est. Et quidem quandocunque habetur cognitio adaequata, habetur et cognitio possibilitatis a priori; perducta enim analysi ad finem, si nulla apparet contradictio, utique notio possibilis est.”

전제한다. 선형적으로 사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의 완전한 분해를 제외하면 분해된 개념의 양립 가능성과 무모순성을 확인할 때이다. 그리고 개념들이 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논리학의 용어이며 논리적 증명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참된 관념은 그것의 개념이 가능할 때이고 거짓 관념은 모순을 포함할 때라는 라이프니츠의 진리 정의는 논리적 관점에서 내려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즉 경험과 증명은 라이프니츠가 확실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로 밝힌 것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모든 것은 증명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진다.”<sup>25)</sup>

감각 지각을 통해서 얻은 혼란스러운 심상은 기호화 과정을 통해 이성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구별 가능한 개념이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 기호를 사용해 사고하는 것은 추론에 용이하다. 앞서 제시한 많은 텍스트에서 라이프니츠는 천각형과 같이 매우 큰 수가 포함된 것, 가장 빠른 속도와 같이 무한 개념이 포함된 것, 혹은 복잡하고 매우 긴 계산 같은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기호를 사용해 이해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기호를 사용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추론과 논증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들이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은지, 그런 개념들 자체가 모순을 포함하지는 않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신이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개념들의 양립 가능성과 무모순성을 기호를 사용해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호적 인식은 인간이 세계에 대한 증명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분명하고 구별되는 관념이 참된 관념이라는

25) De arte characteristica ad perficiendas scientias ratione nitentes(1688): A VI, 4, 911쪽. “Omnia quae certo cognoscimus, vel demonstrationibus vel experimentis constant.”

것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사람들은 종종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분명하고 구별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이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의 관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인식의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상력의 산물로 채워진 관념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인식, 진리 그리고 관념에 대한 성찰」을 마무리하면서 규정된 형식에 따른 논리학의 증명 그리고 형식적 논증을 강조하면서 증명이 관념의 진리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기하학자들도 사용하는 **통상적인 논리학**의 규칙들은 진술의 진리성에 있어서 무시되어선 안 되는 기준이다. 그들은 정확한 경험이나 확고한 증명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확실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확고한 증명이란 논리학에 의해 이미 규정된 형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 항상 스킴라에 의해 규정된 삼단논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논증은 형식에 따라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정당한 계산이 이룰테면 **형식적으로 적법한 논증**의 예로 간주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필수적인 전제도 생략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전제들은 사전에 증명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가설로 가정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결론 또한 가설적이다. 이것을 세밀하게 관찰한 사람은 기만적 관념들부터 자신을 쉽게 보호할 수 있다.”<sup>26)</sup>

26) Meditationes, 590-591쪽. “De caetero non contemnenda veritatis enuntiationum criteria sunt regulae **communis Logicae**, quibus et Geometrae utuntur, ut scilicet nihil admittatur pro certo, nisi accurata experientia vel firma demonstratione probatum; firma autem demonstratio est, quae praescriptam a Logica formam servat, non quasi semper ordinatis scholarum more Syllogismis opus sit ... sed ita saltem ut argumentatio concludat vi formae, qualis **argumentationis in forma** debita conceptae exemplum, etiam calculum aliquem legitimum esse dixeris; itaque nec praetermittenda est aliqua praemissa necessaria, et omnes praemissae jam ante vel demonstratae esse debent, vel saltem instar hypotheseos assumtae, quo casu et conclusio hypothetica est. Haec qui observabunt diligenter, facile ab ideis deceptricibus sibi cavebunt.”

여기서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논리학의 형식적 규칙은 현대 논리학에서 기호로 표기하고 있는 자연 연역(natural deduction)의 규칙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 제시한 텍스트에서 그가 “기계적 실” 혹은 “사고의 실”로 암시한 것이 이 규칙들일 것이라는 것은 그가 사고의 실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사고의 실**을, 따르기만 하면 정신의 노력 없이, 싸우지 않고 오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추론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부른다. 이 방법은 미로에서 아리아드네의 실을 가진 사람 만큼 안전하다.”<sup>27)</sup>

기호를 사용해 사고의 기계적 길, 형식적 틀을 따라 추론하고 증명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진리를 얻는 방법이 아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관념이 가진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을 얻게 된다. 이런 지식은 항상 완전성을 향해 수정되고 개선되는 과정을 거친 증명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통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어떤 것, 말하자면 입증된 진리나 여전히 입증되어야 하는 진리, 하지만 적어도 더 단순한 명제로 환원되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후에 앞의 논쟁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로부터 생긴 새로운 문제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무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진보할 것이고 결코 공허하게 애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 인간 정신이 주어진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많은

---

27) Filum cogitandi sive de logica nova condenda(1683-1685): A VI, 4, 537쪽.  
“FILUM autem COGITANDI voco Methodum quandam facilem et certam, quam sequendo, sine agitatione mentis, sine litibus, sine formidine errandi, non minus secure procedamus, ac is, qui in labyrintho filum habet Ariadnaeum.”

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라이프니츠가 남긴 업적 중에서 기호화가 사용된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미적분 계산법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발견된 뉴턴의 방법이 아니라 라이프니츠의 방법이 현대에도 사용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그의 체계적인 표기법 때문이다. 그는 미분법을 통해서 무한이 적합한 기호화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렇다고 인간이 무한을 현실적으로 조망할 수는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한에 대한 기호적 인식은 내용 없는 명목적 인식이다. 무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호로 표기함으로써 무한이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고할 수 있고 또 무한한 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기호의 기능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기호의 첫 번째 기능은 표현기능이다. 기호는 기본적으로 사고와 지각에서 그것이 표현하거나 표상하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기호는 기억과 상상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는 기호로 기억을 표지함으로써 과거의 것을 다시 현재화하고 내적으로 숙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감각 지각에서 비롯되어 혼란스러운 심상을 구별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로 또

28) 앞의 저작, 533쪽. “Ita enim semper aliquid didicissemus, scilicet veritatem vel probatam, vel reductam saltem ad propositiones quasdam simpliciores quae adhuc probandae restarent, nec unquam postea resumissemus priorem controversiam, sed quaestiones novas ex ea enatas, cumque non eatur in infinitum, et cum semper profecissemus aliquid, nec unquam in vanum laboravissemus, ideo mox in plurimis quaestionibus cognovissemus, quicquid de illis ex datis mente humana sciri potest.”

다른 기호의 대표적 기능은 축약기능이다. 기호는 여러 다양한 것을 하나로 통합해 동시에 표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 추론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긴 계산이나 추론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기호의 기능은 소통적 기능과 도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에 더하여 인식과 관련해서, 넷째 기호는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기능으로 인해 우리는 세계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갖출 수 있다. 기호는 추론과 논증을 통해 논리적이고 순서 있게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호의 이 기능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증명적 지식을 얻게 된다.<sup>29)</sup> 다섯째 기호는 사고를 감각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필자는 이 기능이 인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연구자들이 특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기호를 “사고를 표상하는 가시적 표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면 “사고의 분석을 감각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sup>30)</sup> 기호는 “쓰여진, 표기된 부호”이기 때문이다.<sup>31)</sup> 또 “부호는 지각된 것이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지각되지 않은 것의 현존을 추론한다.”<sup>32)</sup>라고 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기호는 감각할 수 없는 사고를 감각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기호의 감각 가능성은 기억과 상상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고와 추론에도 큰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기호로 표기하면서 계산하고 추론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유용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호의 감각 가능성은 신의 직관적 인식이 갖지 못한 인간의 기호적 인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직관적 인식의 직접성과 통합성을 단순히 모방하는 대신에 기호적 인식은 감각 가능성이라는

29) 이상의 기호의 기능에 대해서 Poser(1997), Leduc(2014), Couturat(1901, 88-93); Krämer(1992) 참조.

30) De characteribus et de arte characteristica(1688): A VI, 4, 916쪽. “Characterem voco, notam visibilem cogitationes representantem.” Analysis linguarum(1678): A VI, 4, 102쪽. “... hinc analysin cogitationum possumus sensibilem reddere, ...”

31) 각주 3 참조.

32) C. 497쪽.

매우 중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라이프니츠 원전

*Sämtliche Schriften und Briefe*, hrsg. von der Preussischen (after Deut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now Berlin-Brandenburg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 Reihe I-VII, Darmstadt, after Leipzig, now Berlin, 1923ff. (A VI(Philosophische Schriften), 권, 쪽수)로 인용

*Die Philosophischen Schriften von Gottfried Wilhelm Leibniz*, hrsg. von C. I. Gerhardt, 7 Bde., Berlin 1875-1890 (Nachdruck Hildesheim und New York 1978)(GP 권, 쪽수)로 인용

*Opuscles et fragments inédits*, ed. Couturat, L., Paris, 1903 (Nachdruck Hildesheim 1961)(C. 쪽수)로 인용

*Fragmente zur Logik*, Schmidt, F., Berlin, 1960.

*Philosophical Essays*, Ariew, R., Garber, D., Indianapolis, 1989.

### 연구 문헌

이상명(2011): 「백과사전과 보편 기호학-라이프니츠의 보편학 기획 연구」, 『근대 철학』6권, 45-69.

Dascal, M.(1987): *Leibniz. Language, Signs and Thought*, Amsterdam.

Krämer, S.(1992): “Symbolische Erkenntnis bei Leibniz”,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46-2, 224-237.

Leduc, C.(2014): “The Epistemological Function of Symbolization in Leibniz's Universal Characteristic”, *Found. Sci.* 19, 53-68.

Mcrae, R.(1995): “The theory of knowledge”,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ibniz*, ed. Jolley, N., CUP, 176-198.

Poser, H.(1997): “Zeichentheorie und natürliche Sprache bei Leibniz”, in:

*Schrift, Medien, Kognition*, hrsg. Koch, P., Krämer, S., Tübingen,  
127-147.

\_\_\_\_\_(2005): *Gottfried Wilhelm Leibniz zur Einführung*, Hamburg.

## Character and Cognition in Leibniz's Philosophy

Lee, Sang Myung (Soongsil Univ.)

This paper is a study about the role and meaning of the character in the epistemology of Leibniz. Leibniz insists that all human thinking takes place through the symbol or character. How this is possible, why it is needed, and what is symbolic thinking's role in the epistemology, I will examine through his fragments. First check the background and assumptions of symbolization and symbolic cognition in the 'alphabet of human thought' and the 'characteristica universalis'. And it is examined that symbolic cognition occupies very new and important place in the Leibniz-defined levels of cognition. I suggest that symbolic thinking would be an imitation of the divine intuitive cognition, for human mind have insufficient, imperfect knowledge. Leibniz claims the experience and the demonstration is the path to get the certain knowledge. The symbolic thinking in there not only defines the mental contents obtained from sense perception for distinguishing, but also takes a important role in the reasoning and argumentation. By means of this it says that it has the bridgehead roles for the demonstrative knowledge of the world. According to Leibniz, if we do not use characters, we are unable to get a certain cognition of the infinite God and the world.

Key words: Character, Cognition, Thought, Notion, Idea, Image,  
Demonstration

라이프니츠 철학에서 기호와 인식 / 이상명

이상명 E-mail: lcesamy@ssu.ac.kr

투 고 일	2016년 01월 18일
심 사 일	2016년 01월 28일
계재확정	2016년 02월 16일